

‘한국인의 情’ 탐구한 작곡가 빌리를 만나다



정찬주의
유럽 예술기행

(9) 오스트리아-빈 I

크렘스에서 빈으로 돌아온 나는 베토벤가세의 권회장 별채에서 휴식을 취한다. 오후에는 시립 빈 콘서트 하우스에서 작곡가 헤르베르트 빌리 씨와 만나기로 돼 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3박 4일 동안 알프스 만년설이 보이는 전원마을 몬타폰에서 만났던 빌리 씨다. 권 회장이 불교적 세계관의 글을 쓰는 소설가가 한국에 있다고 하자 호기심을 느낀 그가 나를 강력하게 만나고 싶어 했으므로 찾아갔던 것이다. 나는 그의 2층집 옆의 펜션에 묵으면서 3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마치 오래된 영혼의 친구처럼 그의 작곡철학과 나의 문학관을 비교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그러니 나는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친구가 된 그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외곽의 포탈베르크에서 1956년에 태어난 그는 현재 눈 덮인 몬타폰 작업실에서만 은둔하듯 살고 있다. 작품으로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탄생 150주년 기념곡 ‘만남’,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이레네’ 등 수많은 곡이 있다. 그는 25세에 작곡을 시작한 지 15년 만인 만40세에 작곡가로서 최정상에 올라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수여하는 젊은 작곡가상, 오페라작곡상, 학문과 예술을 위한 영예 십자 대령 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빈 필, 베를린 필,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 특급 교향악단과 클라уди오 아바도, 오자와 세이지,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등 거장 지휘자들이 그의 작품을 연주했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정(情)을 주제로 한 10악장을 완성하여 초연할 곳을 모색 중인데,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천재적인 상임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에게 악보를 보여주자 자신이 찾던 음을 발견했다며 초연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음악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내 삶과 작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고요’입니다. 그러한 고요와 적막을 찾아 며칠이고 몇 달이고 알프스 숲속을 걷다보면 어느 순간 내 안의 깊은 곳, 몸속에서 음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성적 판단이나 분석은 사라지고 나를 둘러싼 자연과 이성의 막을 벗어나 무한한 우주와 이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나는 그때 작곡합니다.”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한 뒤 나는 그를 만나러 나선다. 빈 콘서트 하우스는 내 숙소에서 택시로 10분 거리다. 권 회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빌리 씨와 만날 사무실로 안내해 준다. 이번 만남은 내가 권 회장을 통해서 요청해 성사되었는데, 나는 3년 전에 나누었던 그의 음악인생이랄까, 그의 삶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들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좁은 사무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가 천진하게 웃으며 들어온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지방 여행을 마치고 오스트리아에 왔습니다.”

“저도 작곡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을 때 피사와 피렌체에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토스카나에서 저는 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곳에는 실로 모든 음악이 존재했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묻은 뒤 우리는 곧바로 이야기에 들어갔는데 내가 주로 질문하고 그가 답변한 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다.

그는 7세 때부터 불치의 병에 걸렸다. 병은 그에 게 수도승의 고행 같았다. 학교보다는 집에 머문 시간이 많았고 여러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아버지한테



일년 내내 연극을 공연하는 빈의 국립 부르크 시아터.

7살에 불치병 걸려 집에 머물며
아버지에게서 다양한 악기 배워
의대·신학대·음대 거쳐 작곡가 길
40세에 최정상 작곡가 반열
한국 情 주제 10년간 10악장 작곡

1일 1식하는 채식주의자 빌
“나와 자연과 우주는 하나...
전생에 한국인이었음지도
한식은 하루 세끼라도 먹겠다”

서 트럼펫과 바이올린, 피아노 등을 배우며 외로움을 견뎠다. 아버지는 음악 가정교사인 셈이었다. 12세 때는 병이 더 심해졌고, 17세-18세 때는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들이 6인 병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갔다. 그때 그는 병실을 몰래 빠져나와 강가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강물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었다. 첫 빗방울 소리의 음은 그의 화두가 되었다. 마침내 그는 그 음을 두 악기로 재현해 냈다. 그것은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출발점이었다. 불치의 병은 수도원 성당의 노신부가 준 물을 마심으로 해서 치유가 되었다(이 부분에서 그는 믿지 못하겠다며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는 계속 들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서 자신을 버리겠다고 기도하고 맹세했다. 이후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갔다. 그러나 곧 자퇴하고 신학대에 입학했다. 신학대 생활도 원만하지 못했다. 2학년 강의시간에 “미사 때 물이 어떻게 예수의 피가 되느냐?”고 질문해 신부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는 휴학해 버렸다. 결국 어렵게 신학대를 졸업한 뒤 잘츠부르크 음대에서 작곡을 공부한 뒤 25세부터 40세까지 작곡에 전념했다.

나는 그가 동양인처럼 철저히 일원론자라는 것에 친밀감을 더 느끼지 않았나 싶다. 나와 자연, 우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믿는 헤



빈 도심에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인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



빈의 국립 부르크 시아터 문에 새겨진 셰익스피어 조각상.



오페라 공연이 늘 이뤄지고 있는 빈의 명소 국립 오페라 하우스.

르베르트 빌리. 고행하는 선사처럼 1일 1식을 하는 채식주의자.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전생에 한국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고백. 한국음식이라면 맛있으므로 하루에 세끼라도 먹겠다고 하니 그의 고백이 공허하지는 않다. 2시간쯤 정도 흘렸을까. 그가 일정상 더 이상 대화를 나누기가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또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아쉽지는 않다. 나와 아내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안정을 이뤄낸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을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잠깐 바라본 뒤 속소로 돌아와 옷을 바꿔 입는다. 나는 개량한복, 아내는 한복으로 갈아입는다.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발레 ‘지젤(Giselle)’을 보기 위해 한국식 정장을 차려 입은 것이다. 티켓은 권 회장이 구해주었으니 오페라 하우스에 가기만 하면 된다. 발레를 관람하기는 내 생애 처음이다. 발레용어사전을 보니 ‘지젤’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다.

“1841년 작. 19세기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인 테오필 고티에의 대본에 아돌프 아담의 음악, 그리고 장 코탈리와 쥘 페로가 안무를 담당했다. 한 농가의 소녀 지젤과 백작인 알베르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아픔과 죽음까지 뛰어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로맨틱발레의 대표작이며, 프랑스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지젤’은 1841년에 초연된 것이 아니라, 1860년 러시아에서 마리우스 쾨르네프가 새롭게 안무한 작품이다.”

연극전문관인 국립 부르크 시아터와 더불어 빈의 예술명소가 된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 일찍 도착했는데 기묘한 차림의 일본여성들이 눈에 띈다. ‘지젤’ 리플릿을 구해 보니 백작으로 출현하는 무용수가 일본인이다. 일본인 무용수를 보기 위해 일본에서 온 팬들이었다. 관람객들이 나와 아내의 한복을 보고는 엄지를 치켜든다. 2층 객석으로 들어가니 숨이 턱 막힌다. 평일인데도 6층 전 좌석이 만석이다. 이 정도의 큰 극장과 만장한 관객이 있어야만 문화대국의 대열에 끼지 않을까 싶다.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발레 ‘지젤’의 내용이 무언지 이해되고 전혀 지루하지 않다. 예술의 도시 빈에 왔다는 실감이 비로소 든다.

다음날, 나와 아내는 또 빌리 씨를 만나기 위해 어제 오후에 갔던 빈 콘서트 하우스로 간다. 빌리 씨가 한국인의 정(情)을 주제로 10여 년 걸려 작곡한 10악장의 배경을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해서이다. 사무실에 드니 벽시계가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다. 나는 빌리 씨에게 1악장부터 10악장까지의 작곡의도를 상세하게 듣는다. 그리고 보니 소(진리)를 찾는 열 단계의 그림인 불가의 심우도가 연상된다. 그래서 내가 메모지에 소를 그려 보여주자 그가 몹시 흥미를 느끼며 공감한다. 그가 작곡한 음악도 절대자유와 평화를 찾고자 1악장에서 9악장까지 흐르다가 10악장에서는 처음의 고평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심우도에서 소를 찾기 위해 저자거리를 떠났다가 소를 찾은 다음에는 소를 잊어버린 적멸의 상태에서 저자거리로 돌아가는 형식상 전개가 흡사한 것이다.

“진정 평화가 요구되는 한반도 판문점에서 제 곡 정(情)이 초연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일본 도쿄의 뉴 저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자신의 협주곡을 초연하는 것을 본 뒤 한국에 들렀을 때 세 가지 소리, 가장 높은 음과 가장 낮은 음, 그리고 가장 긴 음을 들었다고도 고백한다. 순간 내 머릿속에 가장 높은 음은 한국인의 흥이고, 가장 낮은 음은 한국인의 한이고, 가장 긴 음은 한국인의 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친다. 12시가 되자 그가 서둘러 일어선다. 인스부르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란다. 그는 나를 만난 시간이 행복했다며 손을 내민다. 고맙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그를 배웅하기 위해 빈 콘서트 하우스 현관까지 따라가는데 문득 그의 인생을 소설로 써보고 싶다는 충동이 번갯불처럼 번진다. 서머셋 모옴이 ‘달과 6펜스’에서 화가 고흥을 주인공으로 삼았듯. /글·사진 정찬주(소설가)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